

가야권문화유적
길라잡이
시리즈3

창원의 문화유산 제대로 알기

창원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IN CHANGWON

펴내는 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손쉬운 가야문화 길라잡이 시리즈 3번째로, 비화가야 지역인 창녕, 아라가야 지역인 함안에 이어 골포국 지역인 창원에 대한 문화유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창원은 공업신도시와 젊은 신도시로 다가오지만, 고대 삼한시대 이래 가야제국의 해상활동 근거지였고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붓과 칠제품들에 서도 보드시피 2천해 앞에 우수했던 문화와 지방세력의 근거지였음을 알려 줍니다.

1990년에 창원에서 자리를 튼 우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해 동안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음정동 등 창원소재의 고분과 지석묘 등 여러 유적을 발굴한 자료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요약·안내한 자료집입니다.

아무쪼록 창원의 문화유산을 보고, 느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9년 12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강 순 형



차례

1	창원의 지리·역사적 환경	9
---	---------------------	---

2	창원의 문화유산	15
---	----------------	----

- | | |
|------------------|----|
| 1) 고고유적 | 15 |
| 2) 불교유적·유물 | 29 |
| 3) 유교유적 | 51 |
| 4) 기타유적·유물 | 55 |

3	참고자료	71
---	------------	----



1 창원의 지리·역사적 환경

창원시는 마산시, 부산광역시와 함께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은 서북쪽의 천주산(656m)과 동쪽의 봉림산(567m), 남동쪽의 불모산(802m), 남쪽의 장복산(566m)과 팔용산(328m)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안선은 12.6km로 마산만과 접하고 있다. 하천은 천주산을 기점으로 한 5.2km의 내동천과 정병산을 기점으로 한 7.5km의 창원천, 불모산과 장복산을 기점으로 한 9.5km의 남천이 각각 마산만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 기후는 온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992~2001년 연평균 기온은 15도, 연평균 강수량은 1,395mm이며 1년 최소 강수량은 1994년에 718mm, 1년 최고 강수량은 1991년에 2,046mm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유적으로는 동읍의 합산패총이 있다. 이곳에는 약 5,000년 전 만들어진 붉은 새김무늬가 있는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함께 청동기시대와 삼한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이 채집되고 있어 창원 일대가 오랜 기간 선사인들이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살기 좋은 고장임을 알 수 있다. 3,000년 전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 다수의 지석묘가 만들어지고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창원분지 내를 비롯한 동읍, 북면 등지에 지석



묘가 남아 있는데, 그 형태는 주로 개석식과 기반식이다.

동읍 용잠리 일대 지석묘군을 비롯하여 덕천리에서는 대형의 상석과 깊은 하부 구조가 1990년대 국내 처음으로 발굴되어 주목을 끌었다. 성산유적과 반계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환호취락(마을 바깥으로 도랑과 같이 깊게 파서 적이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시설)인 남산유적은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한다. 이들 유적의 입지는 독립된 구릉이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삼한시대에 들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창원지역에 골포국(骨浦國)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변한(弁韓) 12국 중의 한 지역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고대 중국 사료인 『삼국지위지동이전 변진조(三國志魏書東魏傳 弁辰條)』와 『후한서 동이전(後漢書東魏傳)』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한(馬韓)은 서쪽에 있고 54국이 있으며 북으로는 낙랑(樂浪)과 접하고, 남으로 왜(倭)와 접하고 있다. 진한(辰韓)은 동쪽에 위치하고 12국이며, 북으로 예맥(濊貊)과 접하고 있다. 변한(弁韓)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며 남쪽은 왜(倭)와 더불어 접해 있으며 모두 78개국이다”. 이로 볼 때 지금의 김해지역이 구야국, 함안은 안야국이며 이 중간에 주조마국(走漕馬國)이 있어 지금의 창원 동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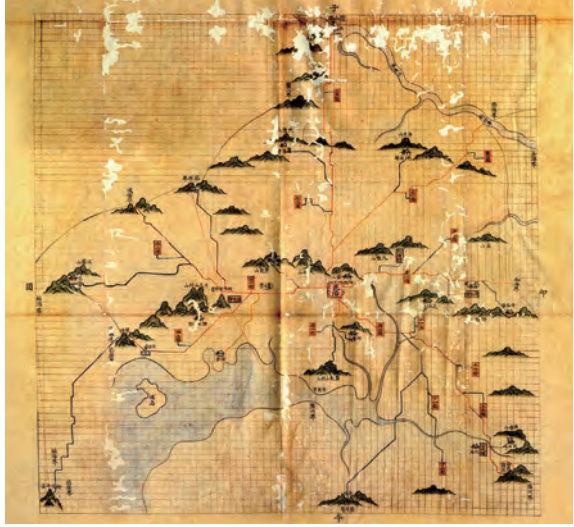
삼한시대 유적은 주거지, 분묘, 패총 등이 확인되었다. 취락은 보통 평지보다 약간 높은 구릉지대나 구릉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는데, 주거지 유적으로는 가음정 복합유적, 외동유적, 창곡동유적 등이 있으며 분묘유적으로는 다호리고분군, 삼동동용관묘, 화천리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다호리유적은 1988년부터 8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한 결과, B.C. 1세기에서 A.D. 1세기에 이르는 삼한시대 초기의 수장묘가 발굴되면서 통나무 목관, 청동거울, 붓, 부채, 칠기칼집 동검과 각종 철기 등 다양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문화적, 정치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강력한 집단이 창원일대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큰 취락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성산패총, 가음정패총 등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시기에 변한이 가장 주목되는 점은 철 생산과 수출이다. 고대사회에 있어 철은 농기구와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삼국지위지동이전 변진조』에는 “변진에서는 철을 산출하여 한인(진한과 마한)과 동예인 및 왜인이 와서 무역해 가고 또 모든 매매에 철을 사용하였다. 이는 마치 중국에서 전폐를 사용함과 같다. 또한 낙랑과 대방 2군에 대해서도 철을 제공하였다.”라고 하였듯이 철은 당시 중요한 교역 매개체였다. 성산패총에서는 중국 한(漢)나라 때 화폐인 오수전(五銖錢)이 출토된 것도 당시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경상도 일대는 고대부터 철산지로서 유명하였으며, 조선시대때 창원 불모산 일대에 철이 생산되었다는 기록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세종실록(世宗實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인 문무왕(665년)때 하주를 낙동강 동서로 나누어 동편지역은 삼랑주(叡良州)로 하고 굴자군(屈自郡)인 창원권역은 이에 소속되었다. 경덕왕 16년(757년)에 ‘9주 5소경’의 행정구역개편 및 정비를 실시하여 삼랑주가 양주(良州)로 개칭되면서 1주 1소경 12군 34현을 두었다. 이때 굴자군은 의안군, 골포현은 함포현으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행정체제가 통일신라 전반 및 후삼국, 고려시대 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라말기에 이르면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인 호족세력이 선승들을 후원하여 각지에 독자적인 선문(禪間)을 개창하였는데, 창원에는 봉림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고려시대에는 현종 9년(1018년) 의안군·함포현이 금주에 소속되었으며, 몽골이 침입한 이후인 충렬왕 6년(1280년) 정동행중서성(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을 함포에 설치하였고 2년 뒤인 1282년 의안현을 의창현, 함포현을 회원현으로 개칭하고 각각 현령을 두었는데 의창은 별호를 회산, 회원은 환주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태종 8년(1408년) 7월에 의창, 회원 두 현을 합하여 창원부로 개칭, 승격하여 판관을 두었으며, 태종 15년(1415년)에 창원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이후 임진왜란 때인 1592년 창원성을 사수하여 선조 34년(1601년)에 창원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 현종 2년(1661년)에는 문묘 전폐를 분실한 탓에 창원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70년 창원대도호부로 복구되었다.



▲ 조선 후기 창원지도(규12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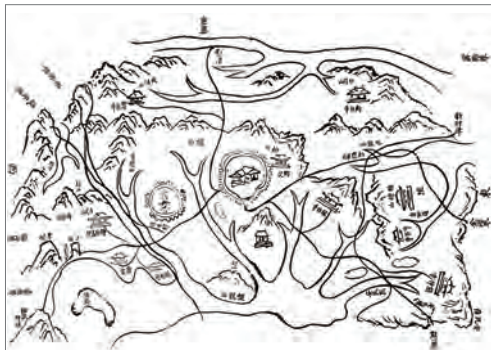
▲ 해동지도

이후 고종 32년(1895년)에 23부제 실시로 진주부 예하 창원군으로, 1896년에는 경상남도 창원군이 되었다. 1899년 마산포가 개항하면서 창원감리서가 개설되었고 1906년 창원부로 개정되었다. 1908년에는 진해군과 웅천군이 창원부에 통합되었다가 1914년에는 다시 창원군으로 개편되었다.

1973년 창원기계공단 조성으로 창원면·상남면·웅남면이 마산시에 편입되었고, 1976년 경상남도 창원지구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80년 창원시로 승격되었으며, 1983년 경상남도 도청이 이전되었고, 1995년에는 동면, 북면, 대산 3개의 면이 통합되었다. 1997년에는 전국 최초로 '대동제'를 도입하여 27개 읍면동을 15개의 읍면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9년말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하기로 결정하여 이후에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편제될 것이다.

2009년 현재 창원시에는 외동 성산패총(사적 제240호)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4건, 성주사 삼층석탑 등 시도지정문화재가 12건, 시도무형문화재 1건, 시도기념물 10건, 문화재자료 7건, 등록문화재 1건 등 총 35건의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는 300여건에 이르고 있다.



▲ 여지도서
◀ 경상도읍지



1) 고고유적

마산 외동성산패총(馬山 外洞城山貝塚)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853-7번지에 위치하며, 사적 제240호(1974.11.2)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 당시에는 행정구역상 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외동의 성산마을 해발 49m의 낮은 언덕 경사면에 입지하며, 1968년에 부산대학교가 1차 발굴을 추진하였고, 1974년 2월 창원공단조성 시 문화재관리국이 긴급조사하였다. 이후 1991년에 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태풍으로 유실된 일부지역에 대한 긴급 구제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성산의 구릉경사면에 각기 독립적으로 삼한시대의 패총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패각층 위로는 삼국시대의 성곽이 축조되어 있었다. 또한 패총 아래에서는 야철지가 발견되어 변한지역에서 철을 생산하여 왜·낙랑에 수출하였다는 중국의 옛기록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출토유물은 민무늬토기(無文土器)와 연질 혹은 경질의 토기류가 출토되었고, 그 밖에 가락바퀴(紡錘車)와 그물추(漁網錘) 수점을 비롯하여 화살촉, 바늘 등의 뼈연장과 다양한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패각층 아래에서 출토된 중국 한나라의 오수전은 유적이 처음 쌓인 시기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로 기원전·후 시기부터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토된 신라토기의 형식을 보면 기원후 4세기 무렵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성벽에서 나온 중국 당나라 화폐인 개원통보의 연대를 통해서 후대 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산패총은 오랜 기간동안 이 일대가 창원 지역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주며, 창원 분지 내에 위치하는 내동패총, 가음정패총 등의 다른 패총 유적과 함께 당시 생활 유적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적지에는 유물전시관을 마련하여 8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경내에는 야철지, 패각층 등 기념물이 4,500평의 잔디밭과 함께 잘 보존되어 있어 시민의 휴식처 및 우리나라 고대사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다.



▲ 성산패총 유물전시관

☞ 찾아가는 길

동마산 I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오는데, 이곳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약 8.5km 정도 가면 성산패총사거리가 나온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약 350m 정도 내려가면 성산패총 입구가 있다.

- 가락바퀴(紡錘車): 물레로 실을 지을 때 쓰이는 가락에 끼워 회전을 돕는 바퀴
- 그물추(漁網錘): 그물에 매달아서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유물
- 반달돌칼(半月形石刀): 청동기시대에 주로 벼이삭을 따기 위해 사용된 반달처럼 생긴 돌칼
- 솥돌(甑石): 연모를 갈아서 날을 세우는데 사용한 돌
- 패총(貝塚): 선사인들이 까먹고 버린 조개껍질이 쌓인 쓰레기더미. 조개무지
- 홈자귀(有溝石斧): 자루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홈이 패여져 있는 돌도끼

창원 내동패총(昌原 內洞貝塚)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261-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44호(1979. 5. 2)로 지정되어 있다.

창원대로변의 목련아파트 맞은편 해발 20~25m 정도의 야산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유적의 성격이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절토된 구릉의 단애면에 패각 및 토기, 골각기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창원대학교박물관이 1988년에 긴급 조사하였다. 채집된 유물로 보아 인근의 성산패총, 가음정동패총과 유사한 성격의 생활유적으로 삼한시대에서 가야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생활유적으로 추정된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I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오는데, 이곳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면 교육단지사거리가 나오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창원기계공고가 나오며 건너편 구릉일대가 내동패총이다.

- 골각기(骨角器): 동물의 뼈로 만든 연모, 구석기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음. 뼈연모, 뼈뿔연모

창원 남산유적(昌原 南山遺蹟)

경상남도 창원시 서상동 산83-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201호 (1997.12.31)로 지정되어 있다.

해발 100m의 서상동 남산 정상부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 전기까지 이르는 취락유적이다. 창원대학교박물관이 1996~1997년에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국내 최대규모의 청동기시대 환호유구와 그 내부의 각종 취락시설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발굴된 지역이 모두 보존되고 있다.

남산유적은 청동기시대 및 삼한시대 방어시설인 환호와 집터, 저장시설, 패총 및 폐기 구덩이 등에서 붉은간토기(紅陶) 등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와 삼한시대 각종 토기류를 비롯하여 간돌칼(磨製石劍), 반달돌칼(半月形石刀) 등의 석기류, 철기류, 골각기류 등 총 339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I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면 서상삼거리가 나온다. 서상삼거리에 서 우회전하여 500m 정도 가면 경상남도 학생기숙사가 있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200m 정도 가면 창원여중이 있다. 그 건너편이 남산으로 정상부에 유적이 있다.

- 간돌칼(磨製石劍) : 청동기시대 갈아서 만든 돌칼
- 붉은간토기(紅陶) : 붉은색 안료를 발라 윤기가 나도록 간 토기



▲ 각종 토기류



1. 남산유적 전경 2. 6호 주거지 돌칼 출토상태
3. 각종 골각기류 4. 청동기시대 집자리 발굴모습

창원 상남지석묘(昌原 上南支石墓)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23-4번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224호(2000.1.31)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1997년 12월 발굴하였다. 내부에는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석곽을 만들고 그 위에 많은 할석과 대형개석을 덮은 후 다시 받침돌과 상석을 올린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이 고인돌(支石墓)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방식고인돌이며, 특히 매장주체부인 석곽이 깊고 견고하게 축조되었고 대형의 상석을 이용하여 분묘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발굴되기 전 도굴되어 매장주체부가 훼손되어 출토된 유물은 거의 없으며, 상

석의 크기는 270×185×190cm이다. 상남상업지역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01년 4월 창원시가 고인돌 1기와 석관묘 1기를 현재의 위치로 옮겨 원상대로 복원, 도심지 한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역사교육장으로 정비하였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온다.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면 공단본부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약 840m 정도 가면 중앙삼거리가 나오고 그곳에서 우회전해서 가면 고인돌사거리가 있다. 그 사거리에서 왼편으로 보면 빌딩 앞쪽에 지석묘가 있다.

- 돌널무덤(石棺墓) : 상자처럼 얇은 판돌들로 널을 짜서 만든 무덤
- 고인돌(支石墓) : 서너개의 받침돌 위에 한개의 넓고 커다란 돌을 얹어 꾸민 선사시대의 무덤
- 켄돌(割石) : 천석이나 산석과 같은 자연돌을 적당한 크기로 켄 돌



1. 적석 제거 후 1차 두껍돌
2. 석곽 노출상태
3. 상남지석묘 정비 후 모습
4. 5호 석관묘 정비 후 모습

창원 외동지석묘(昌原 外洞支石墓)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257-13번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5호(1974.2.16)로 지정되어 있다.

창원 남중학교 내에 있는 남방식 고인돌로 현재는 1기만 남아 있으나 1929년 웅남소학교 신축 및 1952년 남중학교 교지 확장 때 여러 기의 고인돌이 파괴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방형의 상석을 받침돌이 받치고 있는 형태로 상석의 크기는 292×280×135cm이며, 6개의 작은 알구멍(性穴)이 있다. 석곽 내부에서 석축,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온다.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면 남고 삼거리가 나온다. 남고 삼거리에서 유턴하여 230m 정도 가면 창원남중학교 교정 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 덕천리유적(昌原 德川里遺蹟)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덕천리 83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문화재자료 제206호 (1993.12.27)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지석묘를 포함한 청동기시대의 분묘유적으로 1993년 경남대학교박물관이 발굴하였다. 조사결과 고인돌(支石墓) 3기, 돌덧널무덤(石槨墓) 12기, 돌덧널흙무덤(石槨土壙墓) 5기를 비롯하여 고인돌의 묘역시설로 생각되는 동서 17.5m, 남북 56m 규모의 석축 등이 확인되었다.

1호 지석묘는 8×6m 크기의 구덩이를 3단으로 파고 4.5m 아래에 돌덧널(석곽)을 축조하였으며, 그 위에는 네 겹에 걸쳐 모두 17매의 뚜껑돌과 800여개의 돌을 덮었고, 맨 마지막에 35톤 가량의 상석을 얹은 매우 특이한 구조이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재가공된 비파형동검과 간돌검(磨製石劍) 3점, 간돌활촉(磨製石鏃) 36점, 붉은간토기(紅陶) 9점, 대롱옥(管玉) 172점이 출토되었는데, 2호 지석묘에서만 165점의 관옥이 무더기로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여러 기의 무덤들이 동서 90m, 남북 300m 범위 안에만 분포되어 있어 당시 단위묘역으로 파악되며, 청동기 시대의 공간 이용, 신분 분화 등 당시의 생활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형의 고인돌은 이 지역 통치자인 수장이 존재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묘역을 구성한 유적으로는 마산 진동유적(사적 제472호)과 최근 조사된 산청 매촌리유적 등 경남지역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직진하면 도계광장이 나온다. 도계광장을 지나서 동읍 방향으로 가면 용전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하여 철길 넘어 우회전해서 직진하면 덕천리유적이 있다. 그러나 군부대 내에 소재하고 있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 널무덤(土壙墓): 구덩을 파고 밑에 주검을 넣어 묻는 무덤
- 간돌활촉(磨製石鏃):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갈아서 만든 돌화살촉
- 대롱옥(管玉): 구멍을 뚫은 짧은 대롱 모양의 구슬



▲ 자석묘 전경
◀ 1호자석묘 노출모습

의창 다호리고분군(義昌 茶戶里古墳群)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다호리 237-3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사적 제327호 (1988.9.3)로 지정되어 있다. 동면지역이 창원으로 포함되기 전 명명되었다.

창원시 동읍 다호마을 뒷산과 주남저수지로 이어지는 저습한 평지일대에 분포한 삼한·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분묘유적이다. 이 고분군의 종류는 널무덤(木棺墓), 돌덧널무덤(石槨墓) 등인데 널무덤은 주로 구릉 하단부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형돌덧널무덤은 구릉말단에, 대형돌덧널무덤과 돌방무덤은 구릉 중간과 정상에 있다.

1988~199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하여 널무덤 등 총 73기가 조사되었으며, 일부 독무덤(甕棺墓)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조사된 널무덤(木棺墓)은 무덤구덩이의 크기와 껍묻거리구덩이의 유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무덤 주인의 신분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의창 다호리 고분군

1호 널무덤(木棺墓)에서 조사된 나무 널은 지름 1m의 통나무를 세로로 쪼개어 속을 파서 만든 구유 모양으로 나무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큰 성과였다. 또한 1호분에서는 각종 청동기, 철기, 칠기 등 수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어 주목되었는데, 특히 다섯 자루의 붓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서의 고대문자 사용에 대한 고고학적 물증이 될 수 있으며, 원삼국 초기 대외교역의 서사용구(書寫用具)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밖에도 동검, 동모(銅鏃, 청동으로 만든 창)를 비롯한 청동기와 철검, 철모(鐵鏃, 쇠로 만든 창), 손칼, 쇠물을 부어 만든 도끼(鑄造鐵斧), 쇠를 두드려 만든 판상철부 등 철기제품이 나왔다. 또한 칼집, 활, 화살, 함, 붓, 부채 등의 각종 칠기도 당시의 화려한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한나라 거울인 성운경과 중국 화폐인 오수전은 다호리유적이 B.C. 1세기 후반에



▲ 동나무관



▲ 집모양토기 복원품

서 A.D. 1세기 사이에 형성된 유적임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다. 아울러 민무늬 토기, 와질토기 등도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제사 음식이 이때부터 정착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밥과 감, 그리고 율무가 무덤 내에서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다호리 고분은 한국고대사의 공백기인 고대국가 형성시기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중국낙랑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다. 2009년부터 국립김해박물관이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신자료가 기대되고 있다.



▲ 투검창 1호

「갈대밭 속의 나라 (茶戶里) 국립중앙박물관」

▲ 칼과 칼집 1호

☞ 찾아가는 길

동창원I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면 동읍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회전하여 30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천연기념물 제164호인 신방리음나무군이 나오고 계속 직진하면 다호리고분군이 나온다.

- 구덩식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 시체를 위에서 수직으로 넣도록 옆으로 트인 창이나 입구가 없이 돌로 네 벽을 쌓은 무덤
-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 관을 운반하기 위한 지면으로 연결되는 통로와 관을 넣는 큰방으로 이루어진 무덤
- 나무널무덤(木槨墓): 주검을 보호하는 나무 널을 안치한 무덤



▲ B21호분 출토 장신구류



▲ 부채 복원품



▲ 붓



▲ 중국거울 1호



▲ 오수전

「갈대밭 속의 나라 (茶戶里), 국립중앙박물관」

창원 가음정동고분군(昌原 加音丁洞古墳群)

경상남도 창원시 가음정동 산 1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126호(1993.12.27)로 지정되어 있다.

가음정동유적은 외동 성산패총과 함께 창원지역에서는 가장 큰 하나의 유적이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범위가 축소되고 두개의 유적으로 나뉘어졌다. 1982년 창원대학교박물관이 가야문화권유적 지표조사를 실시, 남동편 구릉에서 유물산포지를 확인한 바 있다. 1994년에는 고분군과 패총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긴급구제발굴이 진행되어 청동기시대 집자리 1기, 삼국시대 집자리 3기, 지상 건물지 13동, 논농사터, 배수로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1990년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하였다. 조사결과 덧널무덤(木槨墓) 9기, 앞트기식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 2기,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 1기, 독무덤(甕棺墓)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굽다리접시(高杯), 향아리(壺) 등의 토기류와 화살촉, 도끼, 손칼 등의 철기류, 장신구류 등이 수습되었다.

가음정동고분군은 일찍이 금관가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5세기 전반 이후에는 아라가야의 문화적 영향력 아래로 서서히 편입되어 가다가, 6세기 중반 이후 가야의 멸망과 더불어 신라의 문화권으로 급속히 흡수되어 가는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굴식돌방무덤 출토유물



▲ 앞트기식돌방무덤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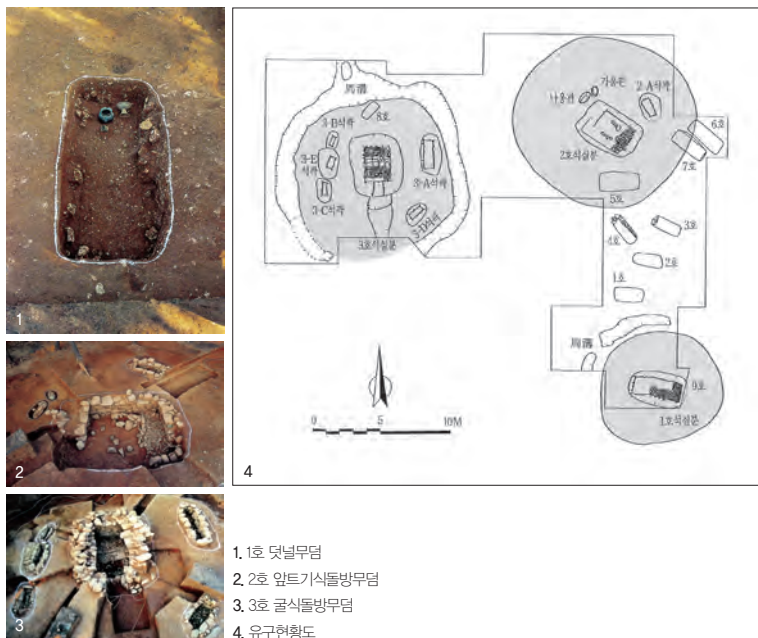


▲ 덧널무덤 출토유물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온다.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면 남고삼거리가 나온다. 남고삼거리에 서 좌회전하여 가면 좌측에 창원남교가 있고, 우측에 산 일대에 가음정동고분군이 있다.

-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 : 관을 운반하기 위한 지면으로 연결되는 통로와 관을 넣는 큰방으로 이루어진 무덤
- 돌덧널무덤(石槨墓) : 주검과 부장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로 네벽을 쌓아서 만든 무덤
- 덧널무덤(木槨墓) : 널이나 부장품을 보호하는 덧널을 나무로 짠 무덤
- 앞트기식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 : 석실묘의 세벽만을 쌓고 한쪽 벽으로 출입한 후 마지막으로 밖에서 벽을쌓아 마무리하는 무덤
- 독무덤(甕棺墓) : 항아리를 관으로 사용하는 무덤
- 굽다리접시(高杯) : 높은 굽다리가 붙은 잔



1. 1호 덧널무덤
2. 2호 앞트기식돌방무덤
3. 3호 굴식돌방무덤
4. 유구현황도



2) 불교유적·유물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佛谷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 1036번지에 위치하며, 보물 제436호(1966.2.28)로 지정되어 있다.

불곡사는 창건 유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1929년 우담화상이 옛날 절터에 드러나 있던 비로자나불상을 파내어 비로전에 모시고 창건하였다. 절을 세우기 전 불곡사 뒤희는 가음정과 대방동, 사과정등을 왕래하는 길이었는데, 이 곳 길가에 불상과 무수한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어 이곳을 부처굴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찰 이름도 부처굴을 한자로 옮겨 불곡사라고 쓴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비로전을 비롯하여 일주문(지방유형문화재 제133호)과 칠성각, 관음전, 비석군, 석물군 등이 있다.

현재 이 불상은 불신과 대좌가 완전하게 남아 있으나 광배는 파편만 남아 법당 안에 있다. 얼굴은 육계가 분명한 나발, 즉 곱슬머리에 얼굴은 둥글고 단아하다. 백호는 눈썹 사이로 약간 내려왔으며, 코 밑의 인중은 약간 두드러져 입까지 연결되었다. 목은 삼도가 뚜렷하고 두 손은 가슴 앞에서 포개어 전형적인 지권인

을 하고 있다. 다리는 왼쪽 다리 위에 오른쪽 다리를 포갠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자세이다. 어깨와 가슴이 단정한 인간적인 신체 형태에, 통견의 법의는 가슴이 넓게 노출되었고 팔과 다리 등에 접혀진 옷주름은 얇게 빚은 듯한 평행 계단식 옷주름이다. 상대·중대·하대로 구성되어 있는 팔각대좌에는 모두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상대에는 장식이 있는 연잎이 중첩되어 새겨져 있다. 중대에는 팔각면에 원광을 갖춘 보살좌상이 표현되어 있다. 하대에는 연잎문양과 함께 그 아래 시대석 각면 안상 안에는 사자 7구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불상은 9세기 후반 통일신라 불상으로 신라양식 불상의 현실적 사실주의 양식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동시대 작품으로는 영주 부석사, 대구 동화사 등에 안치한 비로자나불 등이 있으며, 불상의 높이는 101cm, 대좌높이 89cm이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 소계광장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면 가음정사거리가 나온다.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약 1.1km 정도 가면 한림아파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우회전하여 550m 정도 가면 좌측에 불곡사로 가는 입구가 보인다. 불곡사 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

- 결가부좌(結跏趺坐) : 부처가 좌선할 때 취하는 자세로 오른발은 왼쪽 허벅지위에, 왼발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놓고 발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앉는 자세
- 법의(法衣) : 가사(袈裟)라고도 하며 대의(大衣), 상의, 내의의 삼의(三衣)가 기본임
- 안상(眼象) : 석탑, 부도, 불상, 석등, 석비, 당간지주 등에 사용된 장식문양의 일종으로 기본형에서 복잡한 형태까지 다양하고 내부에 문양이 새겨진 경우가 많음
- 통견(通肩) : 상의가불상의 양 어깨를 모두 덮은 형식



▲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얼굴



▲ 광배편





불곡사 일주문(佛谷寺一株門)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 1036번지에 위치하며, 시도유형문화재 제133호 (1974.12.28)로 지정되어 있다.

불곡사 일주문은 원래 사찰의 일주문이 아닌 창원부 객사 삼문(三門)으로 1822년 웅천향교로 옮겨 사용하다가 1943년 우담화상이 지금의 불곡사로 옮겨 세웠다고 전한다. 단층 맞배지붕의 목조 일주문으로 다포계이다. 4개의 기둥을 일렬로 배치하고 창방과 평방을 엮고, 동서 기둥 위에 각 한 마리씩의 용두와 중간 두 기둥 위에 남북으로 각각 두 마리씩의 용두를 얹어 여섯 용을 7m의 원통 소나무로 입체감 있게 조각하였다. 약간의 곡선을 주면서 몸트림을 하고 있는 모습과 동쪽 주두 위에는 거북이, 서쪽 주두 위에는 호랑이를 각각 민화로 조각하여 얹어 놓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걸작품이다.

○ 다포양식: 기둥 위 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양식의 공포



봉림사지(鳳林寺址)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16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127호(1993.12.27)로 지정되어 있다.

윗봉림 마을에서 북동쪽 골짜기를 따라 600m 정도 올라간 봉림산 중턱의 주머니모양의 분지에 입지하고 있다. 봉림사는 894년경 진경(眞鏡)심희(審希:854~923)가 창건하여 통일신라 시대 구산선문의 하나로 융창하였으나, 이후의 내력에 대해서는 상세히 전해지지 않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1995~1998년에 걸쳐 사찰터를 발굴하였다. 조사 결과 건물지와 탑지가 확인되었으며, ‘봉림사(鳳林寺)’ 명문와편 등 다수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발굴 당시에는 모두 7동에 달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한자리에서 4차례에 걸쳐 세운 건물지도 조사되었다. 중심부에 위치한 석탑지를 중심으로 상단의 동쪽에서 4동의 건물지가, 남쪽 부분에서 3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동쪽 높은 부분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지가 금당지로 보이고, 석탑지 서쪽에는 수미산으로 여겨지는 조산과 연못터가 남아 있다. 그리고 ‘보제사(普齊寺)’ 명문와편이 출토되어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찰의 명칭이 바뀌어 명맥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중인 진경대사보월능공

1. 유적전경

2. 건물지

3. 삼층석탑기단하단부

4. 암막새

5. 수막새

6. 명문기와

탑(보물 제362호)과 탑비(보물 제363호)는 물론 상북초등학교 내의 삼층석탑이 이곳 봉림사에서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온다. 교차로에서 창원으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다가 웅원교차로에서 좌회전한다. 봉림로 지하차도를 지나 봉곡중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창원CC 방향으로 가다가 윗봉림 마을에서 북동쪽 골짜기를 따라 600m 정도 올라간 봉림산 중턱 주머니 모양의 분지에 있다.

구산선문(九山禪門)이란

9~10세기에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에 따라 주관적 사유를 강조한 선종(禪宗)을 산골짜기에서 펴뜨리면서 당대의 사상계를 주도한 아홉 갈래의 대표적 승려집단



▲ 진경대사보월능공탑



▲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

용화전 석조여래좌상(龍華殿石造如來坐像)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853-7번지에 위치하며, 시도유형문화재 제43호(1972.2.12)로 지정되어 있다.

일명 ‘절굴’이라고 불리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탑동 용화전에 있던 불상으로, 의창지구 구획정리사업 시 성산패총 경내로 옮겨 놓았다. 불신·광배·대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불상의 머리 부분은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얼굴은 눈·코·입이 단아하게 표현되어 근엄한 인상을 주며, 목에는 3개의 주름인 삼도(三道)를 시멘트로 복원하였다.

어깨는 떡 벌어졌으나 가슴의 탄력성이 사라지고 허리는 너무 잘록하게 표현되었다. 삼도 아래에는 약하게 목걸이를 조각한 것이 흥미롭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편단(右肩偏袒) 형식의 법의는 ‘ㄴ’자에 가까운 평행한 형태로 도식적인 표현이 강하다. 하체는 상체에 비해 무릎 폭이 좁아져 안정감이 없어 보이며, 결과부좌한 다리 밑으로 부채꼴의 접혀진 외단 모양이 석굴암의 본존상과 비슷하다. 오른손은 무릎 위로 올리고 손끝을 아래로 향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며 왼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여 배부분에 대고 있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光背)는 배 모양(舟形舉身光)으로, 2줄의 선을 이용해 머리광배와 몸광배를 구분하고 있다. 광배의 테두리 부분에는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인 화염문을 새기고, 윗부분에는 작은 부처(化佛)가 합장하고 있다. 양쪽에도 각각 1구씩 있어 모두 3구가 조각되어 있다. 뒤편에는 불상 2구가 표현되어 있으나 아래부분은 전혀 다른 석재를 붙여서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臺座)는 안상이 새겨진 석탑 기단부를 활용하였다. 고려시대 전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높이는 122cm이다.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온다.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8.5km 정도 가면 성산패총 사거리가 나온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360m 정도 내려가면 성산패총 입구가 있다. 용화전 석조여래좌상은 외동 성산패총 내에 있다.



석조여래상도
한방!!

- 광배(光背): 불상 등의 배면에 광명을 표현한 것. 머리 뒤의 원형의 것을 두광(頭光), 등 뒤의 타원형의 것은 신광(身光)이라 함
- 대좌(臺座): 불상을 안치하는 대(臺). 불좌대, 연화좌, 암좌, 수미좌, 금수좌, 대불좌 등이 있음
- 소발(素髮): 별다른 장식이 없는 민머리 형태 의 두발형식
- 우견편단(右肩偏袒):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채 법의를 왼쪽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걸치는 방식

삼정자동 마애불(三亭子洞 磨崖佛)

경상남도 창원시 삼정자동 48-2번지에 위치하며, 시도유형문화재 제98호 (1979.5.2)로 지정되어 있다.

삼정자동 내리마을 계곡 중턱의 높이 4m의 장군바위라 불리는 화강암 바위에 정남향으로 양각된 여래상이다. 이곳은 불모산의 능선이 창원으로 뻗어지는 곳으로 성주사, 불모산, 탑골동 등 통일신라시대 불교유적이 많은 곳을 내려다 보고 있다.

광배와 대좌를 모두 갖춘 불상이나 오른쪽 얼굴 부분이 인위적으로 파괴되어 얼굴의 표정은 알 수 없다. 나발이 표현된 머리 위에는 큼직한 육계가 남아 있으며 왼쪽 뺨은 사실적인 감을 주고 있어 인자한 미소의 얼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에는 백호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목에는 삼도가 돌려져 있다.

통견의 법의는 앞가슴 부분에 박락이 심하여 잘 알 수 없으나 두 무릎을 덮은 뒤 대좌로 흘러내려 대좌 위에 U자가 3개 겹쳐진 모양으로 표현되어 약간 도식적이나 유려한 편이다. 수인은 왼손을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광배는 두광 지름이 50cm, 신광이 150cm 정도이나 마멸이 심하여 신광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며, 두신광 안에는 화염문이 약하게 남아 있는 듯 하다.

팔각형태로 표현된 대좌는 상대와 중대를 조각하였으나 하대는 바위 아랫부분이 자연스럽게 하대의 역할을 하도록 석벽면을 이용하고 있다. 상대에는 끼입은 옷의 무늬가 흘러내린 상현좌로 조각하였다. 중대에는 3개의 기둥을 표현하여 8각의 대좌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불상은 조화와 균형이 맞고 조각이 섬

세하여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보기 드문 불상이
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불상의 크기는 높이 140cm, 너비 100cm이며, 좌대의 너비는 80cm 정도인데
27cm×14cm 크기의 기둥 모양을 표현하였고 칸 사이의 간격은 24cm이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온다.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다가 성주광장에서 좌회전하여 약
500m 정도 가면 삼정자동 마애불상 이정표가 있다. 이정표를 따라서 가다보면 유니온빌리자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가면 계곡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는데, 계곡 중턱에 있다.

- 두광(頭光) : 부처의 존귀함을 표현한 상징으로 머리뒤에 장식한 것. 머리광배
- 신광(身光) : 불·보살의 영험을 표현하기 위해 전신의 뒷면에 장식한 상징. 몸체광배



창원 성주사(昌原 聖住寺)

경상남도 창원시 천선동 10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사찰 설명비문에는 신라 흥덕왕 10년(835년) 무염국사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주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숙종 7년(1681년)에 재건하였다. 원래 성주사는 성인이 기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곰절’이라고도 하는데 소실된 성주사를 재건하려할 당시 하룻밤 사이에 곰이 목재를 옮겨놓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도 전한다.

무염대사는 애장왕 2년(801년) 출생하여 821년 당에 유학하고 845년에 귀국하여 진성여왕 2년(888년)에 입적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귀국한 시기와 창건시기가 맞지는 않고 개창한 승려는 알 수 없으나 원래 웅신사(熊伸寺)로 불리웠다고 한다. 13세기 후반 고승 자정(慈淨)이 수좌로 있었다고 전해지며 통일신라말 와당들이 출토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말기에는 사찰이 조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내에는 시도유형문화재 제25호인 삼층석탑과 시도유형문화재 제134호인 성주사 대웅전, 지방유형문화재 제336호인 성주사 감로왕탱, 문화재자료 제267호 성주사 동종 등이 있다. 또한 진입로변 용화전에는 시도유형문화재 제335호인 창원 성주사 관음보살입상이 있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I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온다.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다가 만민터널 방향으로 우측도로로 가면 성주사 이정표가 있는데, 이것을 따라 가면 성주사 입구가 나온다.



▲ 영산전



▲ 지장전



▲ 지장전

창원 성주사 관음보살입상 (昌原 聖住寺觀音菩薩立像)

경상남도 창원시 천선동 산213-2번지에 위치하며, 시도유형문화재 제335호(1997.12.21)로 지정되어 있다.

성주사 진입로변 용화전 내에 봉안되어 있는 성주사 관음보살입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살상이다.

화강암에 불신과 광배, 연화좌대를 부조한 마애입상으로 마모가 심한편이다. 둥근 상호의 양미간에는 백호를 새겼으며 소발의 머리에 보관이 조각되어 있다. 둥근어깨와 굽은 곡선으로 새긴 'U'자형의 옷주름이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있으나 상체에 비하여 하체가 짧아 균형감을 상실하였다. 불상높이는 148cm이다.



▲ 성주사 용화전



성주사관음
보살입상!!

성주사 감로왕탱(聖住寺甘露王幀)

감로왕탱은 시도유형문화재 제336호(1998.11.13)로 지정되어 있다.

탱화는 천이나 종이에 그린 그림을 족자나 액자의 형태로 만들어 거는 불화의 한 유형으로, 보통 사찰 전각 안의 불상 뒤에 걸어두는 후불화가 대부분이고, 좌우 벽면에 걸어두는 예도 있다. 감로왕탱은 하단불화(下壇佛畵)로 삼베 바탕에 홍색과 녹색을 주조로 하여 채색하였다. 그림 상단에는 칠불(七佛)과 관음보살이 그려져 있고 그림 한가운데 아귀를 중심으로 아귀지옥이 표현되었으며, 아래 쪽에는 인간세상의 천태만상의 고통스런 장면을 그렸다.

그림의 크기는 가로 274cm, 세로 205cm로 그림 하단에 적힌 화기(畵記)에 의하면 용정(擁正) 7년(1729년)에 화원 비구 인행 등이 그린 것으로 조선 후기 불교회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성주사 대웅전(聖住寺大雄殿)

대웅전은 시도유형문화재 제134호(1974.12.28)로 지정되어 있다. 임진왜란에 소실된 것을 숙종 7년(1681년)에 중창하였고, 순조 17년(1817년) 크게 수리하였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맞배지붕의 목조와가로 다포계양식이다. 기둥위의 장식은 앞뒷면에만 배치되어 장식사이의 간격과 크기가 각기 달라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면의 장식은 내·외부를 모두 화려하게 처리한 반면, 뒷면



내부의 장식은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대웅전 내부의 천장은 우물모양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의 삼존불 위에는 단집(불상 위에 만든 작은 집)으로 장엄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조선후기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성주사 동종(聖住寺銅鐘)

동종은 문화재자료 제267호(1998.11.13)로 지정되어 있다.

건륭(乾隆) 48년(1783년)에 제작된 것으로 소리울림을 도와주는 음통은 없으며 종을 매다는 고리는 2마리의 용으로 되어 있다. 종신 가운데에는 4개의 유곽대가 독립되어 배치되어 있고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보살상이 새겨져 있으며 당좌가 없다. 총 높이는 111cm, 입지름은 84cm이며, 무게는 600근 정도로 문양의 조각수법이 조잡하고 표면은 거친 편이나 조선시대 동종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민수야~
저게 동종이야

글씨가
있네?

성주사 삼층석탑(聖住寺三層石塔)

삼층석탑은 시도유형문화재 제25호(1972.2.12)로 지정되어 있으며, 불모산 성주사 대웅전 앞에 있는 화강암제의 삼층석탑이다.

이 탑은 이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3층석탑이다. 현재 아래층 기단은 일부만 남아 있고, 위층 기단에는 네 모서리와 중앙에 기둥모양의 우주가 조각되어 있다. 1층 탑신에는 간단한 문비 모양이 새겨져 있고 3층까지 우주를 얹게 부조하였다.

옥개석은 밑면의 받침이 4단이고 처마선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네 귀퉁이는 치켜올림이 심한 편이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으로 보주(寶珠:꽃봉오리모양의 장식)모양의 석재가 올려져 있지만 원래의 것은 아니다.

간략해진 수법과 양식으로 소박한 느낌을 주는 석탑으로,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우주(隅柱): 건물이나 탑신(몸돌) 등의 모퉁이나 구석에 세운 기둥. 귀기둥



지귀동 봉림사지 삼층석탑(知歸洞 鳳林寺址 三層石塔)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 18번지에 위치하며, 시도유형 문화재 제26호(1985.8.5)로 지정되어 있다.

창원군지에 의하면 원래 봉림사지에 있었으나, 일본강점기 때 일본 반출을 위하여 부산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현지로 돌아 왔다고 한다. 그러나 관리상의 문제로 1960년 창원교육청이 현재의 상북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겼다고 한다. 원상은 안산암으로 만들어진 이중기단(基壇) 구조의 3층 석탑이었으나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면서 파손, 탈락이 심한 편이며 상층기단 일부만 남아있다. 2·3층 탑신석과 상륜부 등은 화강암으로 복원해 놓아 재질과 기법 등의 차이가 있다.

1층 탑신은 두 조각으로 깨져 있던 것을 붙여 놓았는데 네 모서리에 우주를 표현한 것 외에는 다른 장식이 없다. 신부재인 2층 탑신에는 문비 모양의 조각이 어색한 느낌을 주고있다. 1~3층의 옥개석은 밑면에 4단 받침을 두었고, 낙수면의 경사는 급하게 내려온다.

전체적인 구성양식이나 조각수법으로 볼 때 고려시대 전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 높이는 270cm이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직진하면 도계광장이 나온다. 도계광장에서 우회전하여 약 2.6km 가다보면 상북사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좌회전하여 가다보면 상북초등학교가 있다. 삼층석탑은 상북초등학교 교정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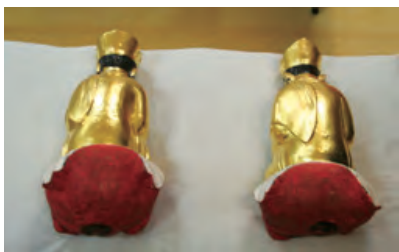




창원 봉림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昌原 鳳林寺木造觀音·大勢至菩薩坐像)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에 있는 봉림사가 소장중인 불교문화재로 시도유형문화재 제473호(2008. 5. 22)로 지정되어 있다.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은 각각 손모습이 다른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연꽃대와 위에 결가부좌하였고, 옷자락이 대좌위로 흘러내려 상현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어깨와 무릎이 좁아 신체 비례가 불균형적이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머리 위에 가운데가 높이 솟은 보관을 쓰고 있고, 상현좌를 취해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전반적으로 평면적이면서 미소 짓는 듯 온화한 인상을 준다. 목에는 삼도를 표현하고 있고, 어깨가 좁고 아래로 상당히 처져 있으며, 가슴은 매우 밋밋하다.

목조관음보살좌상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702년에 화원 법령(法嶺)에 의해 조성된 관음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머리 위에 쓴 보관의 중앙에 정병이 있어 대세지보살상임을 알 수 있고, 대체로 목조관음보살상과 얼굴표현, 착의법 등이 매우 흡사하다. 다만 보계의 표현이 관음보살상은 끝을 둥글게 말아올려 표현한데 비해, 대세지보살상은 끝이 뭉둑하며 그 길이도 짧은다는 점과 보발 표현에 있어 관음보살상은 귀 뒤로 한 가닥의 보발이 흘러내리고 있으나 대세지는 귀 뒤에는 보발의 표현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일부 차이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우 유사하여 같은 조각가에 의해 조성된 작품으로 보여진다.

창원 봉림사소장 불교전적류(昌原 鳳林寺所藏佛教典籍類)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에 있는 봉림사가 소장중인 불교전적류로 시도유형문화재 제432호(2005.7.21)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8건에 이른다.

각각의 명칭은 묘법연화경권제1, (妙法蓮華經卷第一), 묘법연화경권제3,4, 묘법연화경권제4~7, 금강반야바라밀경(상)(金剛般若波羅密經 上),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월인석보제21(상)(月印釋譜第二十一 上),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이다.

구마라집(鳩摩羅什)이 지은 묘법연화경 제1권은 목판본으로 간기는 없으나 지질, 판식 등으로 보아 14세기에 간행된 절첩장으로 보인다. 절첩장(折帖裝, 종이를 길게 이어 붙인 것을 일정한 크기로 접은 후 양쪽 끝에 두꺼운 판을 붙여 만든 책)은 권자본에 이어 고려 중후기에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서지학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본 불경의 경우 인쇄상태가 선명하므로 불경연구, 서지학연구 및 장정연구 등에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창원 봉림사 석조여래좌상(昌原 鳳林寺石造如來坐像)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산 139-9번지 봉림사 내에 소재하며 문화재자료 제 450호(2008.8.22)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불상은 복부 가사 부분의 도금이 약간 벗겨졌을 뿐,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봉림사 극락전에 봉안되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공간에 모셔져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양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아 변형된 항마촉지인에 결가부좌형이다. 장방형의 큰 얼굴에, 어깨는 좁고 무릎이 넓어 불균형을 이룬다. 변형통견식 가사와 도식적이고 딱딱한 옷주름 표현 등에서 전형적인 조선후기 조각의 표현이 엿보인다. 손, 발, 옷주름 등 두텁고 세밀하지 못하는 것은 하다. 특히 변형된 항마촉지인은 칠곡 송림사 목조여래좌상(1655년), 기장 장안사 척판암 석조여래좌상, 호암미술관 석조여래좌상 등에서도 나타나는 데, 17세기에 처음 등장하여 조선후기 석조상에서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바닥면에는 22.5×16.5cm 크기의 복장공이 있으며, 범어가 적힌 한지로 막음하였던 흔적이 보인다. 내부에는 황초폭자(黃綃幅子)에 싸여진 오보병(五寶瓶)과 붉은 색으로 짠 범자원권

다라니 6매, 대불정수륜엄신 매우고 있었으며, 오보병 조 내부에 봉안된 물목을 확 내용이 이전에 개봉된 적 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주 3매 등이 구겨져 속을 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인하기 어렵고, 복장물이 있어 망설야했을 가능





3) 유교유적

창원 향교대성전(昌原 鄕校大成殿)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33-2 번지에 위치하며, 시도유형문화재 제135호(1974.12.28)로 지정되어 있다.

창원향교는 고려 충렬왕 2년(1276년)에 창건되어 1482년 청룡산(현 마산 합성동)에 이전되었다가 그곳의 지세가 문(文) 보다는 무

(武)를 숭상하는 기가 강하다고 하여 1749년 부사 이윤덕 등에 의해 현재 위치로 옮겼으며, 1761년 부사 임익창에 의해 풍화루가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문루인 풍화루(1층은 3문, 2층은 누각)를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향교인 명륜당이 정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좌우로는 유생들이 기숙하던 동재와 서



제가 있고 공자의 신위를 모시는 대성전은 맨 뒤에 있다.

좌우에 조선의 18현을 모신 동무·서무 중앙으로 석축기단 위에 자리 잡은 대성전(大成殿)은 맞배지붕 구조에 정면 3칸, 측면 4칸 규모의 건물이다. 전내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의 오성위 등을 모시고 매년 2월과 8월 상정일을 정하여 석전제를 행하고 있다.

향교 입구에는 부사 이윤덕 이교불망비와 향교 아래에 부사 임익창 풍화루 창건비가 각기 세워져 있다. 창원향교에는 유교 진흥을 위하여 성균관 유도회(儒道會) 경상남도 본부 창원시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계속 직진하다 가다보면 동정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가다보면 이정표가 있고, 이것을 따라 가다보면 창원향교가 보인다.

- 대성전(大成殿): 문묘 안에 공자나 대현의 위패를 모신 전각
- 명륜당(明倫堂):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유생들에게 유교를 가르치던 건물
- 향교(鄕校): 옛 선현을 봉사하고 교육을 위하여 공립으로 지은 학교





▲ 창원 향교 전경



창원 관술정(昌原 觀述亭)

경상남도 창원시 내리동 38-2번지에 위치하며, 문화재자료 제124호(1985. 1. 14)로 지정되어 있다.

내리동 반룡산 남동기슭의 군용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술정은 창원향교 서편의 육영재(育英齋, 1726년 창건)를 훼손할 때 회산감씨 문중에서 인수받아 고종 14년(1877년)에 이 건하였다.

관술정은 임진왜란때 선무원종공신에 오른 감경인과 그 동생 감경륜 형제를 모시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사학기관인 서당으로도 사용되었다. 1936년 관술정 뒤편에 삼열사(三烈祠)를 세워 선무원종공신 형제분을 옮겨 모시고, 지금은 문중의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불사문(不捨門), 관술정(觀術亭), 상장문(尙裝門), 삼열사(三烈祠)로 1열로 배치되어 있다. 경내 한켠에는 "통정대부 중추원의관 회산감공행덕비(通政大夫中樞院議官檜山甘公行德碑)", "통정대부 중추원의관 감공재원송덕비(通政大夫中樞院議官甘公在元頌德碑)"가 세워져 있다.

매년 음력 4월15일 유림제를 지내고 있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소계광장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25번 국도를 따라 가다 용원교차로에서 다시 우회전하여 약 1.3km 지점에서 다시 우회전한다. 가다보면 내리동 반룡산이 있는데 남동기슭의 군용지내에 위치한다.





4) 기타유적·유물

창원 진례산성(昌原 進禮山城)

경상남도 창원시 토월동 산44-1번지일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128호 (1993.12.27)로 지정되어 있다.

김해시 진례면과의 경계를 이루는 비읍산 위에 축조된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신라때 축성된 것이다. 성의 남쪽은 비교적 험한 암벽의 산으로 출입이 불편하며, 북쪽으로는 긴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차단이 용이한 지형이며, 김해평야와 창원 분지를 조망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김인광(9세기대 호족)이 군사를 모아 조련한 곳으로, 『여지집성』(1962년)에는 가락국의 태자를 진례성주로 봉하였고 토성과 첨성대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0년도에 경남문화재연구원이 시굴조사를 하였으며,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어 형태만을 알 수 있는 정도이나 남쪽부분은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현재 확인되는 성의 부속시설로는 관문으로 추정되는 문지를 비롯하여 서쪽과 남쪽에 문지 등 3개소의 문지가 남아 있으며, 치는 서쪽과 남쪽에서 2개소가 확

인되고, 망루지 5개소와 건물지 1개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기와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이며, 특히 봉림사명(鳳林寺名) 기와 출토가 주목된다. 이는 폐사된 봉림사에서 폐와(廢瓦)를 가져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찾아가는 길

동마산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소계광장 교차로가 나온다. 교차로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5번 국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여 용원교차로에서 다시 좌회전한다. 도청방향으로 가다 보면 창원 지방법원이 나오는데 법원 뒤쪽 비음산 정상에 있다.

○ 치(雉): (치성) 성벽에서 돌출시켜서 쌓은 성벽



▲ 진례산성 성벽 모습





하늘에서
보는 산경~



창원 신방리읍나무군(昌原 新方里읍나무群)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신방리 652번지에 위치하며, 천연기념물 제164호 (1964.1.31)로 지정되어 있다.

두릅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 굵은 가지가 사방을 퍼지며, 크고 편평한 가지가 달린다. 잎은 마주나고 거의 둥글며, 가장자리가 단풍잎처럼 5~9개로 갈라지며 열편에 톱니가 있다. 잎의 길이가 10~30cm, 간혹 50cm에 달한다. 꽃은 7~8월에 피고 황록색이다. 화서는 가지 끝에서 자라서 가지가 갈라지고 끝에 20~30개의

꽃이 산형으로 달린다, 열매는 거의 둥글고 지름이 6mm 정도로서 10월에 검게 익으며 1~2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신방초등학교 뒤 길가 언덕에서 4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높이는 18~19m 정도이다. 가슴높이 둘레는 가장 큰 것이 5.4m이고, 세그루는 크기가 비슷하며 3.2m이다. 1982년 10월에 외과수술을 받았다. 길가에서 자라며 늙었기 때문에 심재가 썩은 부분이 많다. 썩은 부분을 모조리 도려내고 소독한 다음 인공수피를 채웠다. 서 있는 곳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노출되어 석축을 쌓아서 뿌리가 묻히도록 하였다.

나무 나이는 약 700년쯤 되었으며, 높이 약 30m, 가슴높이 지름이 약 1.8m에 달한다. 나무의 목재는 악기를 만들고 가시가 달린 가지는 귀신을 쫓는 용도로 써왔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쫓는 나무라 하여 음나무 아래에서 풍물을 치며 마을의 액운을 쫓았다고 한다. 또한 나무를 훼손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하여 극진히 보호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동창원I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면 동읍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회전하여 30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좌측에 신방초등학교를 지나 약 100m 지점에 신방리음나무군이 있다.

달천구천(達川龜泉)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감리 868번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32호(1974.2.12)로 지정되어 있다.

북면 외감리 새터마을에 있는 달천구천은 조선 숙종 때 허목(許穆)선생이 낙향하여 지낼 때 달천정이라는 정자를 만들고 손수 거북모양의 돌을 깎아 우물을 만들었다고 전하며, 우물의 모습도 거북의 형태이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이 솟아 나와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어 왔다. 이곳에 약 1km 가량 떨어진 천주산(天柱山) 계곡 반석(盤石) 위에는 선생이 직접 음

각한 '달천동(達川洞)'이라 쓴 필적이 남아 있으며, 이 계곡을 달천동이라 부른다.
허목선생(1595~1682)은 조선 중기 때의 사람으로 자는 화보(和甫)·문부(文父),
호를 미수(眉叟)라고 하였으며, 숙종 때 우의정을 지냈다.

☞ 찾아가는 길

북창원IC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에서 창원방향으로 좌회전하여
1045번 지방도를 따라 800m 정도 가면 외감리 입구가 있다. 외감리 입구에서 460m 정도 가서 우
회전하여 직진하다 보면 좌측에 새터버스정류장이 있고, 정류장에서 좌회전하여 6m 정도 들어가
면 새터마을이 나오는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달천구천이 있다.



아~ 목말라

근테이거
거북모양이네~

정열공 최윤덕묘(貞烈公崔潤德基)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대산리 산8번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121호(1992. 10. 21)로 지정되어 있다.

북면 대산리 사리실마을 뒷산에 위치한 최윤덕 장군의 묘는 봉분의 사면을 호석으로 치장한 조선 초기의 방형원분으로 묘 앞에는 상석과 2단의 계절이 있으며, 계절의 전방 좌,우측에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규모는 남북 576cm, 동서465cm이다. 장군의 묘 뒤편에는 부인의 묘로 추정되는 같은 형태의 봉분이 하나 더 있다.

이 묘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총묘조(塚墓條)에 의하면 '최윤덕묘(崔潤德基) 재부북이십리(在府北二十里)'로 되어 있다. 최윤덕 장군(1376~1445)은 세종 때 대마도의 왜를 소탕하고 평안, 황해의 여진족을 물리쳐 무인으로서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까지 올랐다.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묘 2기가 있어 1기는 부인의 것이나, 뒤의 1기는 누구 묘인지 알 수 없다.

☞ 찾아가는 길

북창원IC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가다보면 화천교차로가 나온다. 여기서 좌회전하여 79번 국도를 따라 약 1.2km 정도 가면 동전교차로가 나오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조금 가다보면 우측에 작은 승산교가 있는데 건너서 약 950m 정도 가면 이정표가 있다. 이정표를 따라 가면 대산리 사리실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 뒷산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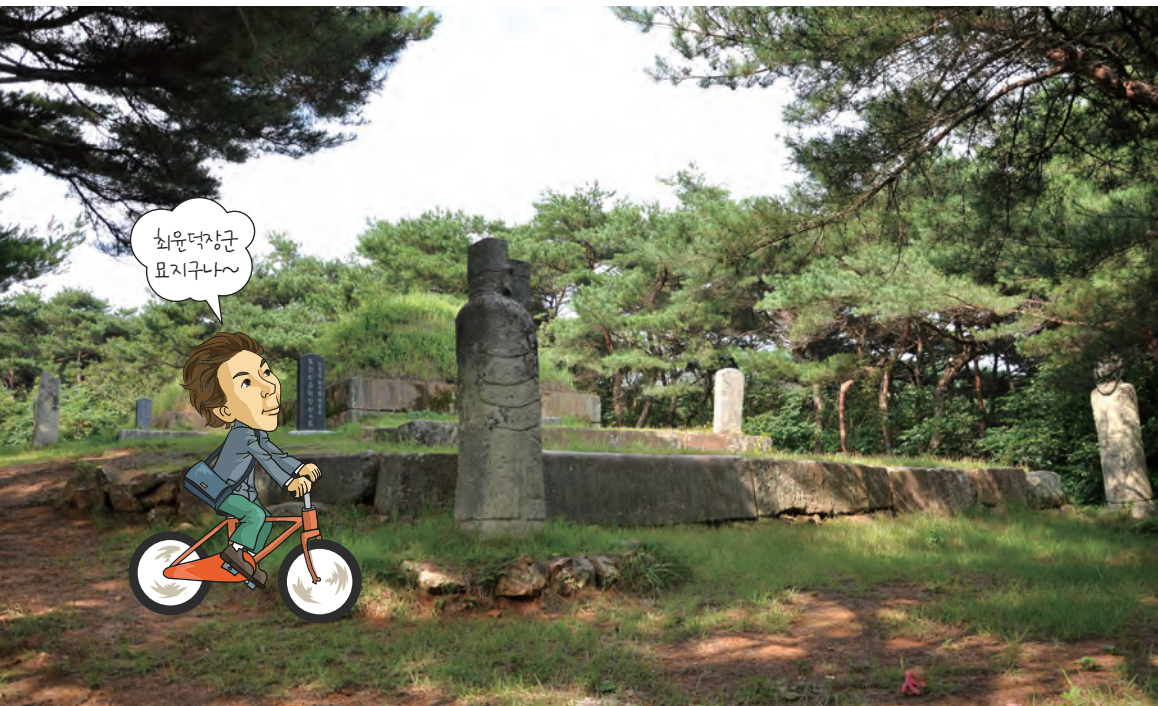
최윤덕 장군

조선조 초기 무장, 자는 여화 호는 임곡, 시호는 정열공, 본관은 통천, 지중추부사 운해의 아들. 고려 우왕(1376년)때 창원시 북면 내곡리 무등촌에서 태어났으며, 1446년에 사망하였다. 학문은 양촌 권근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19세 때인 조선조 태조 3년에 갑무과에 합격하였다. 21세 때 부친을 따라 영해의 반포에서 왜적을 격파하였다. 세종 원년(1419년)에 삼군도절제사로서 대마도에 출정하여 점령하고 천신산에서 대마도 도주의 항복을 받았다. 세종 15년 계축에 야인 이만주가 압록강의 지류인 파저강을 건너 침입하여 인민을 학살하므로 장군이 도절

제사로서 평안·황해 2도 군병 1만5천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야인을 격퇴하였다. 세종 15년, 왕은 선위사 박신생을 군영에 보내어 여러 가지 물품을 하사하였다. 장군이 개선하는 날 세종은 근정전에서 큰 연회를 베풀고 왕이 친히 술잔을 잡아 위로하였으며 세종 16년 우의정이 되었다. 이것은 무인에게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장군은 관직을 맡아서는 청렴결백하여 청백리로서 이름이 남았고 장수로 30년을 지내면서 그 위력이 변경에까지 알려졌다.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종은 애도하여 3일간 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제사물품을 하사하고 시호를 정열공이라 하였다. 세종 조정에 배향되었고 평안도 안주 청천서원에 봉향되었으며 통천 풍계사(楓溪祠)에 봉향하였다.

묘소는 창원시 북면 대산리 갈전 부락 뒷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조 초기의 방형묘이다. 공의 정려각은 창원시 소답동에 있고 정열공 최윤덕 장상 신도비는 1996년 건립, 창원시 용지공원에 있다.



최윤덕장군 생가지(崔潤德將軍生家址)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내곡리 1096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시도기념물 제145호 (1995.5.2)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세종때 무장으로서 좌의정까지 오른 최윤덕장군의 생가지로, 북면 송촌 마을 뒷산에 위치한다. 주민들에 의해 “정승골”이라고 불리고 있는 장군의 생가 터는 계단식논과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 사랑채 자리라고 전해지는 곳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사랑채의 축대는 밭둑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물의 흔적이 관찰되며, 기와 및 자기 조각들이 채집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북창원IC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가다보면 화천교차로가 나온다. 여기서 좌회전하여 79번 국도를 따라 약 1.2km 정도 가면 동전교차로가 나오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약 350m 지점에서 우회전을 한다. 우회전하여 1045번 지방도를 따라 약 3km 정도 가면 내곡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60번 지방도를 따라 약 1.8km 가서 좌회전하여 들어가면 송촌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 뒷산에 위치한다.



어사옥비(御賜玉碑)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지개리 534번지에 위치하며, 문화재자료 제166호 (1987.5.19)로 지정되어 있다.

북면 지개리의 창녕 조씨 재실인 모선재 경내의 비각에 있는 어사옥비는 조선 중종 때의 문관 조치우선생의 부인에게 내려진 것이다.

조선 초기 일반묘비형으로 가침석과 비신을 한 돌로 만들었으며, 비신에는 "숙인 창원박씨지묘(淑人昌原朴氏之墓)"라 새겼다. 높이는 118cm, 너비 47cm, 두께 19cm이다.

조치우선생은 대구부사를 지낸 바 있으며, 청렴, 결백하고 치적이 뛰어나 청백리에 올라 부인과 함께 옥비를 하사받게 되었는데, 선생의 비는 경북 영천군 대창면 대재동 유원제에 있다.

☞ 찾아가는 길

북창원IC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가면 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에서 창원방향으로 좌회전하여 1045번 지방도를 따라 약 1.3km 정도 가면 지개리 입구가 보이는데, 다시 좌회전하여 가면 대한마을이 나오고, 마을 안쪽에 창녕 조씨재실인 모선재 경내에 있다.



주남돌다리(注南돌다리)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 590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문화재 자료 제225호(1996.3.11)로 지정되어 있다.

창원의 동읍과 대산면의 경계를 이루는 주천강(注川江)에 가설되어 있는 주남돌다리는 동읍의 판신마을과 대산면의 고등포마을을 이어주고 있는데, 800여년 전 강 양편 주민들이 정병산 봉우리에서 자웅석(雌雄石)을 옮겨와 다리를 놓았다는 전설이 있으나 건립시기, 경위 등은 확실하지 않다.

돌다리는 1967년경 집중호우로 붕괴되어 강 중간에 교면석(橋面石) 1매와 이를 지탱하는 양쪽의 교각석(橋脚石)만이 온전하게 남아있던 것을 1996년 창원시에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원하였다. 돌다리의 길이는 4m 내외이며, 자연석·점판암판석을 걸쳐 만들었다.

조상님들의
지혜는 대단하~

☞ 찾아가는 길

동창원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면 동읍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회전하여 30번 국도를 따라 가면 신방리읍나루군이 위치해 있고, 여기서 약 1.3km 정도 가서 우회전하여 가면 주남저수지 이정표가 나온다. 이정표를 따라 가다가 주남저수지를 지나면 우측에 주천강이 보인다. 강을 따라 가면 주남돌다리가 나온다.



김명윤 유품쌍검(金命胤遺品雙劍)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석산리 432-1번지에 위치하며, 문화재자료 제263호(1997.12.31)로 지정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일등공신에 수록된 동산공 김명윤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유림들에 의해 건립된 도봉서원(道峯書院) 내에 보관되어 있으나 지금은 국립진주



박물관에 위탁보관중에 있다. 김명윤선생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경찬(景讚), 호는 동산(東山), 본관은 상산(商山)이다.

임진왜란 때 파주목사로 있으면서 큰 전공을 세웠으며 이후로 충주, 진주, 제주 목사를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고 광해군 원년(1609년) 45세로 세상을 떠났다. 선조가 하사한 것으로 전하는 쌍검은 두 자루가 똑같은 형태로 칼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양날을 가지고 있으며 검의 등쪽으로 한 개의 가지가 나 있다.

나무로 만든 손잡이는 일부 훼손되었으며, 나무 손잡이가 없는 검은 길이가 73cm, 폭 5.2cm이며 다른 한 자루의 검은 9cm 정도 짧다.

찾아가는 길

동창원IC에서 창원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가면 동읍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회전하여 30번 국도를 따라 가면 다호리고분군이 나오고 여기서 약 2.7km 정도 가면 석산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온다. 진입로에서 조금 들어가면 마을회관이 나오고 그 뒤에 도봉서원이 있다.

창원 사람동 순흥안씨소장동안관련자료 (昌原 士林洞 順興安氏所藏洞案關聯資料)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있는 개인 소장품으로 시도유형문화재 제491호(2009.12. 3)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것은 동안(洞案, 洞契) 10책, 퇴촌동계(退村洞契) 1책, 향약안(香約案) 4책, 서문(序文) 1책, 회산향약계안(檜山鄉約稷案) 1책, 남면보민고절목(南面補民庫節目) 1책, 완문(完文) 1책 등 모두 19책이다.

소장자인 순흥안씨 집안은 원래 함안에서 거주하다가 안명갑(安明甲, 1574-1651) 때 창원 퇴촌으로 이거하였다. 그의 부친인 안민(安愍, 1539-1592)과 형 안신갑(安信甲, 1564-1597)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하다가 순절하였기 때문에 당당한 사족가문 출신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안명갑은 1623년 처음 동계를 실시할 때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순흥안씨들은 퇴촌동에서 순흥안씨 집촌을 이루고 이 일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향약(鄉約)이 전 고을 차원이 아닌 고을 내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실시될 때 이를 동약(洞約)이나 동계(洞契)라고 한다. 이러한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명단과 관련된 규정이나 내력 등이 적혀 있는 장부가 동안(洞案)이다.

10책에 남아 있는 동안(洞案) 내용을 볼 때 시작 시기는 1623년이며, 퇴촌리 일대를 넘어 지귀리·봉림리·반송리 등 4동을 포괄하고 있던 남면 일대에 이 동안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촌동계는 1804년에 지은 것으로, 계의 시행을 격려하는 내용과 술 취한 자, 봄가을 나무 태우는 것 등에 대한 처리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향약안은 1706년 장례 때 마을 주민들의 비용을 덜기 위해 별도로 계를 조직하여 이때 사용되는 유장과 조물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1760년 이후 것만 남아 있다. 이 자료들 중 일부 초기 기록들은 사라졌지만 1648년에서 1870년까지 320여년에 걸치는 시기의 상황을 담은 자료들로 양반, 비양반층의 입록의 변화 등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창원 문창제놀이(昌原 文昌祭놀이)

지방무형문화재 제5호(1980.12.26)로 지정되어 있다.

문창제놀이는 조선 인조14년(1636) 병자호란 때 순절한 충신 황시헌(黃是憲) 공을 추모하는 민속놀이이다.

병자호란 때 창원부사 백선남은 의병을 모아 남한산성으로 가는 도중 청나라와 전투를 벌이다가 백부사가 쓰러지면서 관인(昌原府印)을 던져주니 황공이 이를 오른손으로 쥐려고 하자 적이 오른팔을 베어버린다. 하는 수 없어 왼손으로 쥐려고 하자 왼손마저 베어, 황공은 입으로 관인을 물고는 부사를 안고 최후를 맞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놀이의 유래가 되었다.

원래는 황공의 집안 제사 때 창원부사가 관속들과 성묘 제례하고 관기(官妓)로 하여금 추모의 춤을 추게 하고 군노(軍奴) 이모(李某)가 황공 순절 때의 모습을 재현해 보인 것이 계기가 되어 전해져 왔으며, 일제 때 단절되었던 것을 기능보유자 정경수(丁敬洙)옹이 4과장으로 재현하였다.

제1과장은 제향(祭享)으로 황공의 위패를 세우고 제물을 진설하여 제례하는 내용이고, 제2과장은 추도무(追悼舞)로 기녀들이 추도무를 추며 황공의 넋을 위로하며, 제3과장은 군노놀이로 황공이 순절할 때의 상황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제4과장은 매귀굿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놀며 황공의 명복을 빌며 풍물을 울리는 판굿으로 예능 위주의 일반적인 민속놀이와는 달리 충신을 기리는 놀이이다.



▲ 문창제놀이

창원 소답동 김종영 생가(昌原 召畚洞金鍾瑛生家)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131-14에 위치하며 등록문화재 제 200호(2005. 9. 14)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근대조각의 선구자 우성(又誠) 김종영(1915~1982)의 생가 건물로 1940년대 근대 한옥 양식으로 건립한 주택이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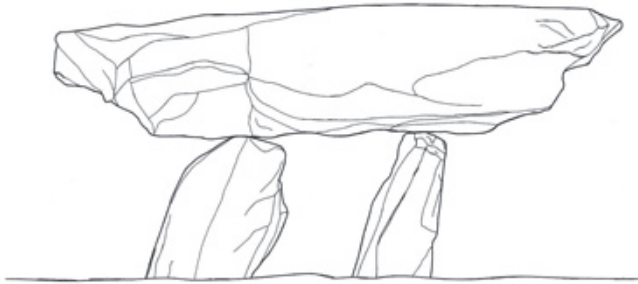


파트 빌딩 숲에 고풍스럽게 자리 잡고 있으나 마당 한가운데로 도로가 뚫리면서 'ㄷ자형'의 집 한 채가 허물어졌고 본채와 사랑방 역할을 하던 사미루(四美樓)가 똑 떨어져버려 마치 별개의 집처럼 되었다. 전통적인 형태에 현대적인 주거 요소를 가미한 건물로 비례의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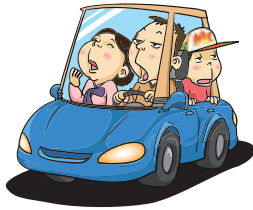
참고·인용문헌

- 박동백 · 권주영, 2009, 『창원의 뿌리를 찾아서』 창원시
- 권귀향, 2009,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창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창원시사(상권)』
- 문화재청, www.cha.go.kr
- 경상남도, 1995, 『경남문화재대관-국가지정편』
- 경상남도, 1995, 『경남문화재대관-도지정편』
- 경남농협, 1997, 『경남전설을 찾아서』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창원 진례산성』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4, 『창원 가음정동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1998, 『창원 봉림사지』
- 1999, 『창원 상남지석묘군』
- 200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5년의 발자취』
- 국립중앙박물관, 2000, 『창원다호리유적』
- 2008, 『갈대밭 속의 나라 다호리』
- 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76, 『마산 외동 성산패총 발굴조사보고서』
- 박동백 · 변지섭, 1994, 『축성대감 최윤덕』
- 배상현, 2001, 『진경 심희의 활동과 봉림산문』, 『사학연구』 제74호
- 이상길, 1994, 『창원 덕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
- 『구주고고학회 · 영남고고학회 제1회 합동고고학회』 자료편
- 창원시 · 창원대학교박물관, 1995, 『창원시 문화유적정밀지표조사 보고서』
- 창원대학교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창원시』
- 1996, 『창원 남산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 2003, 『창원 남산유적』
- 향교지편찬위원회, 2004, 『창원향교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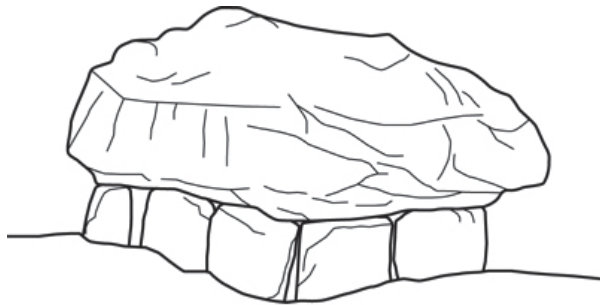
【 고인돌의 종류 】



위쪽에 개석식
고인돌이구



아래쪽에 있는게
위석식고인돌이야~





우진각



팔작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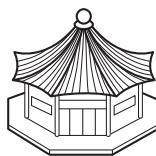
맞배지붕



사모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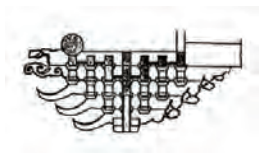


육모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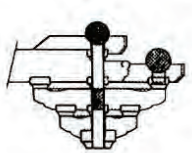


팔모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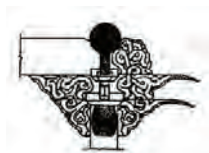
【지붕의 종류】



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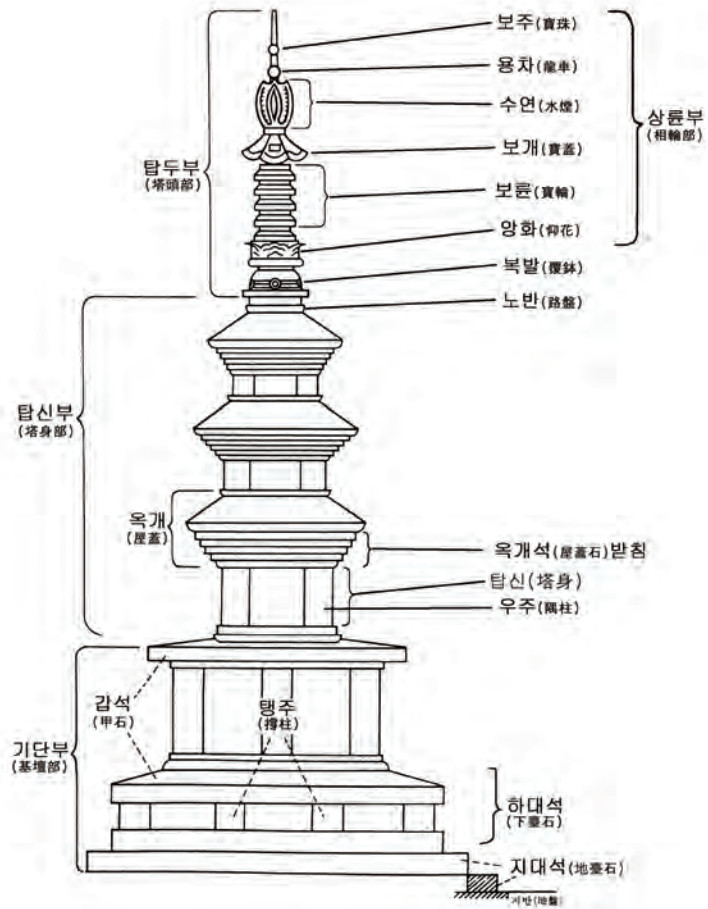


주심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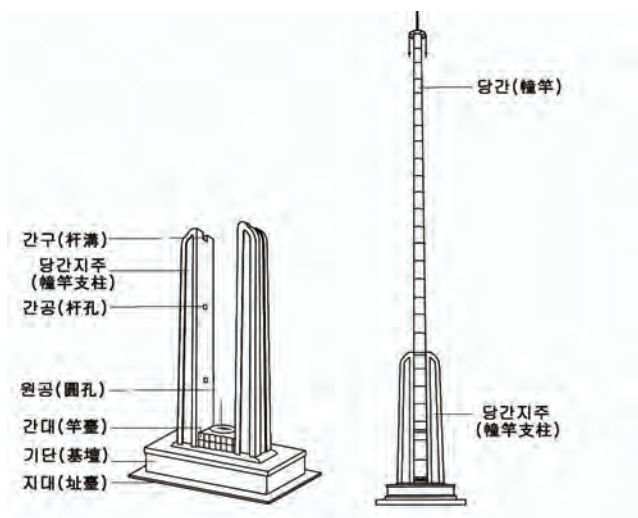


익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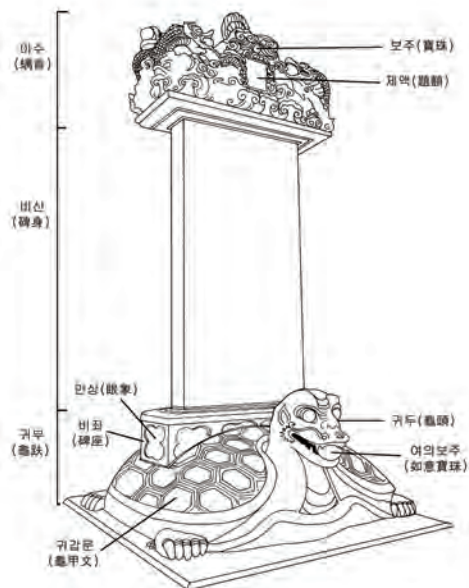
【공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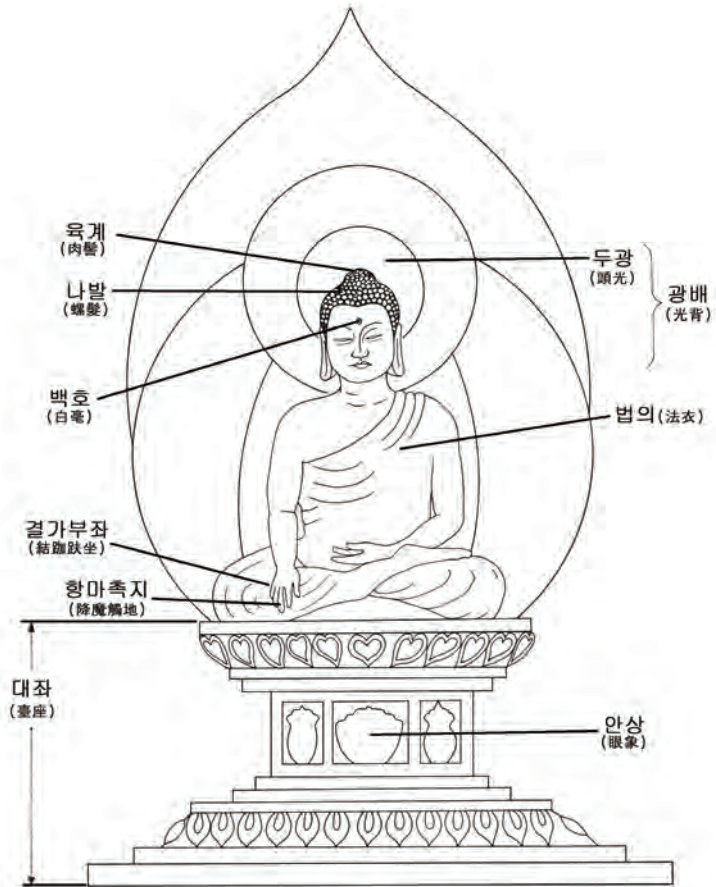
【석탑의 부분명칭】



【당간지주의 부분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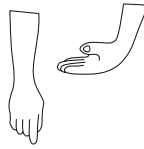


【석비의 부분명칭】



【불상의 부분명칭】

- 다포항마촉지인 : 석가모니불
- 자권인 : 비로자나불
- 설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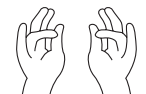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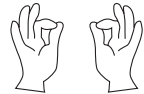
항마촉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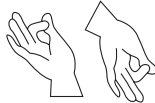
자권인



설법인



- 아미타9품인(아미타불)



아미타9품인



선장인



사무외인

- 아미타9품인(아미타불)
- 선장인(참선인)
- 동인(사부외인 · 여원인)



합장인



연화합장인



금강합장인

【 불상의 손갖춤(수인) 】

::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유형별 지정권자별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 념 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 보	보 물	중요민속자료	사 적	명 승	천연 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민속자료	시도기념물			시도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가. 사지,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사적
 -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 명승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강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천연기념물
4. 민 속 자 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

:: 국가지정문화재 내용

국 보

-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유례가 드문 것, 즉 독특하거나 희귀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는 것

보 물

- ▶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전적류, 회화, 조각, 고고자료, 무구 등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
- ▶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의 유일무이한 독립적인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이와 유사한 문화재

사 적

- ▶ 기념물 가운데 선사유적 및 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 교통, 토목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의 유적

중요무형문화재

- ▶ 무형문화재 중 국가에서 지정한 것

중요민속자료

- ▶ 선조들의 생활문화 유산으로 역사상·학술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명 승

- ▶ 기념물 중 경치가 특별히 빼어난 경관지

천연기념물

- ▶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식물(자생지)이나 광물, 그리고 동굴 등으로서 중요한 기념물

등록문화재

- ▶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시설물 가운데 50년 이상이 된 **근대문화재** 가운데
- ▶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문화재
- ▶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문화재
- ▶ 한 시대 조형의 모범이 되는 문화재
- ▶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 ▶ 전통건조물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

:: 시도지정 문화재

- ▶ 시도지정문화재란 광역시·도내에 소재한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외에 보존·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

:: 매장문화재

- ▶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
 - 유물은 토기, 석기, 철기 등의 출토물을 말하며, 유구는 집터, 고분, 건물터 등
 - 유적은 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한 유적 안에서도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있음

● ● ● 창원시 연표

시 대	연 대	주요사항
고 대		청동기시대, 삼한시대의 유적 분포 삼한시대 골포국 · 주조마국
삼 국 시 대	757	삼국시대, 신라가 굴자군 설치 신라 경덕왕 16년, 굴자군은 의안군, 골포현은 함포현으로 개칭
고 려	1018 1280 1282	현종 9년, 의안군 · 함포현이 금주에 소속, 후에 감무 파견 충렬왕 6년, 정동행중서성을 함포에 설치 충렬왕 8년, 의안현을 의창현, 함포현을 회원현으로 개칭, 현령파견
조 선	1408 1415 1592 1601 1603 1661 1670	태종 8년, 의창현 · 회원현이 통합, 창원부로 승격 태종 15년, 창원도호부로 승격 선조 25년, 임진왜란때 창원성 사수 선조 34년, 창원대도호부로 승격 선조 36년, 경상우도병마절도사영, 진주로 이전 현종 2년, 창원현으로 강등 현종 11년, 창원대도호부로 복구
근 대	1895 1896 1899 1906 1908 1914 1926	진주부 창원군으로 개편 경상남도 창원군으로 개편 마산포 개항, 창원감리서 개설 창원부로 개정 진해군 · 웅천군, 창원부에 통합 창원군으로 개편 진해선 개통
현 대	1973 1976 1980 1983	창원기계공단 조성으로 창원면 · 상남면 · 웅남면이 마산시 편입 경상남도 창원지구출장소 개설 창원지구출장소, 창원시로 승격 경상남도청이 창원시로 이전

●●● 창원시 문화재 현황

35점(개소) / 국가지정 4점(개소) / 도 지정 30점(개소) / 등록문화재 1점(1개소)

번호	종 류	문화재명	소재지
1	보물 제436호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대방동 1036 불곡사 경내
2	사적 제240호	외동 성산패총	외동 853-7
3	사적 제327호	의창 다호리 고분군	동읍 다호리 237-3일대
4	천연기념물 제164호	신방리 읍나무군	동읍 신방리 652
5	시도유형문화재 제25호	성주사 삼층석탑	천선동 102 성주사 경내
6	시도유형문화재 제26호	봉림사지 삼층석탑	봉곡동 18 상북초등학교 내
7	시도유형문화재 제43호	용화전 석조여래좌상	외동 853-7 성산패총 경내
8	시도유형문화재 제98호	삼정자동 마애불	삼정자동 48-2
9	시도유형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대방동 1036 불곡사 경내
10	시도유형문화재 제134호	성주사 대웅전	천선동 102 성주사 경내
11	시도유형문화재 제135호	창원향교 대성전	소담동 433-2 창원향교 내
12	시도유형문화재 제335호	창원 성주사 관음보살입상	천선동 산213-2 성주사
13	시도유형문화재 제336호	성주사 감로왕탱	천선동 102 성주사 경내
14	시도유형문화재 제432호	봉림사소장(불교 전적류 8점)	봉림동 산139-9
15	시도유형문화재 제473호	창원봉림사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	봉림동 산139-9
16	시도유형문화재 제491호	창원 사람동 순흥안씨 소장 동안 관련 자료	개인소장
17	시도유형문화재 제5호	문창제놀이	
18	시도기념물 제5호	창원 외동지석묘	외동 257-13 남중학교내
19	시도기념물 제32호	달천구천	북면 외감리 868
20	시도기념물 제44호	창원 내동패총	내동 261-1일대
21	시도기념물 제121호	정렬공 최윤덕묘	북면 대산리 산8
22	시도기념물 제126호	창원 가음정동고분군	가음정동 산15일대
23	시도기념물 제127호	봉림사지	봉림동 165일대
24	시도기념물 제128호	창원 진례산성	토월동 산44-1일대
25	시도기념물 제145호	최윤덕장군 생가지	북면 내곡리 1096일대
26	시도기념물 제201호	창원 남산유적	서상동 산83-1일대
27	시도기념물 제224호	창원 상남지석묘	상남동 23-4, 23-5
28	문화재자료 제124호	관술정	내리동 38-2
29	문화재자료 제166호	어사옥비	북면 지개리 534
30	문화재자료 제206호	창원 덕천리유적	동읍 덕천리 83일대
31	문화재자료 제225호	주남돌다리	대산면 가솔리 590
32	문화재자료 제263호	김명윤유품 쌍검	동읍 석산리 432-1(국립진주박물관 보관중)
33	문화재자료 제267호	성주사 동종	천선동 102 성주사 경내
34	문화재자료 제450호	창원 봉림사 석조여래좌상	봉림동 산139-9
35	등록문화재 제200호	소담동 김종영 생가	소담동 131-1번지

창원의 문화유산 제대로 알기

창원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IN CHANGWON

발 행 일 _ 2009년 12월 30일

편집·발행 _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북15로 236번지

055·285·1314~5 www.gaya.go.kr

제 작 _ 아이웍스디자인그룹

055·262·2116

ISBN 978-89-6325-277-3 93910

창원의 문화유산 제대로 알기

창원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IN CHANGWON

